

교회소식 | 나무십자가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오중보기도 - 매일 정오 12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1. 감사

릴루엣 원주민 밴드 성탄선물 보내기 선교에 동참해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66개의 선물은 다음 주일(15일)에 전달됩니다.

2.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교사로 헌신해 주십시오. 문의 : 김상훈목사(778-886-4596)

3. 2020년도 제직(권사, 집사) 임명 안내

- 2019년도 권사, 집사 직분을 받은 성도(재임명을 원치 않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 신임집사 임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성도.
 - ② 교회출석 6개월 이상 주일성수, 헌금생활, 교회봉사 중 2가지 이상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 성도.
 - ③ 12월 22일 주일 저녁 6시에 실시되는 제직학교에 참석하는 성도.
 - ④ 신임집사 임명 대상자에게는 개별연락 할 예정입니다.

4. 2020년 달력 배부

새해 달력은 각 가정별로 벽걸이와 탁상용 각각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우소식

- 다과 : 윤은경집사 가정 / 다음 주 : 류영현성도(김정미집사) 가정
- 출타 : 송지은자매(한국 방문)

▶12월 목회일정

- 12/22(주일) 2020년도 제직학교
- 12/25(수) 성탄절 감사예배 / Potluck(11AM) ■ 12/31(화) 송구영 신예배(11PM)

■예배위원안내

날 짜	부 기도	2부	헌금위원	안 내
12월 08일	김만수	유영주	신용진	12월 박미란
12월 15일	박청아	유은숙	유영주	

■공동기도제목 12시 정오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	비울처럼 본을 보일만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성도를 위해	유지연성도(행정성도, 인아)가정의 믿음과 건강을 지키소서

살기는 사람들	협력 선교지 및 선교사
담임목사 정 병 완	캐나다 릴루엣 원주민(이준호 선교사)
부목사(유스) 김 상 훈	북 한 First Steps(수잔 리치 Susan Ritchie)
전도사(키즈) 장 호 선	에디오피아 Petros Network
전도사(찬양) 박 청 아	

선한 이웃 선교로 통로가 되는 나무십자가 공동체



내 백성을 위로 하라!
Comfort my people.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제 7권 49호

대림절 둘째 주일

2019. 12. 8

	1부 오전 9시 (설만한 몰가)	2부 오후 2시 (교회 분당)
신앙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	
찬 송 (Praise)	찬송가 452장	경배와 찬양
회중기도 (Prayer)	김만수집사	유영주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교회소식 및 성도의 교제	
다음세대 축복기도 (Blessing)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봉 헌 (Offering)	찬송가 452장	
말씀선포 (Sermon)	사도행전 26:24-32(신약 234쪽) ‘나와 같이 되기를’ 정병완목사	
파송찬양 (Closing song)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축 도 (Benediction)	정병완목사	

새벽기도회

매일(화-토) 오전 6시
“요한계시록 강해”
인도: 담당 교역자
장소: 교회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시
“요한복음 강해”
인도: 담당 교역자
장소: 설만한 몰가

교회학교예배

주일 오후 2시
Kid(드림, 비전목장)
Youth(다니엘목장)
인도: 담당 교역자
장소: 지하 교육실

사도행전 26:24-32(나와 같이 되기를)

1. 유대인들의 상소로 총독 벨릭스가 명예롭지 못하게 퇴임하고 그 자리에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2.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2년 넘게 판결을 미룬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마무리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베스도 총독의 주재로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사도 바울을 기소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요청했고 로마법에 따라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3.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기 전 유대지역을 관할하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는 중에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재판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4. 재판을 주도한 아그립바 왕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가 석방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바울의 무죄를 확인해 줍니다.
5.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는 말씀으로 재판을 마무리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어떤 점을 본 받으면 좋을까요?
6.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2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린 사도 바울의 기다림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5:10-11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7. 사도 바울은 아그립바 왕과 총독 베스도의 지위와 정치적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종일관 당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주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했습니다(행 9:15).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한편 다투의 신앙고백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시 118:6; 히 13:6).
8.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복음전파의 모습을 보며 “미쳤다” 비난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고후 5:13)
9.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신 믿음과 사랑과 섬김을 우리도 본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봅시다.

♣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

월요일 - 파키스탄에는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의 수가 수백 명에 이릅니다. 정부와 의회가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는 법률을 속히 개정하거나 철폐할 수 있게 하소서.

화요일 -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의 나라들이 속히 개입을 중단하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넘어 예멘 주민을 위한 내전종식과 평화협상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

수요일 - 아시아와 아프리카 빈민지역의 주민들 가운데 광견병 사망자가 약 6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빈민을 위한 의료혜택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구와 제도가 마련되게 하소서.

목요일 - 소수종교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이 높은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소수 종교에 대한 사회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종교적 관용정신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게 하소서.

금요일 - 우크라이나는 부패가 만연하고 러시아의 관계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게 된 새로운 집권당이 사회를 잘 통합하고 화합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소서.

토요일 - 릴루엣 밴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성탄선물이 다음 주일(15일)에 전달됩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선물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기쁨이 릴루엣 원주민 밴드에 가득하게 하소서.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준호선교사님의 발걸음을 보호하소서.